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준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 하얏텔·나우누리 PSPD 유네텔 :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과학부, 사회부, 보건의료, NGO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담당 : 한재각 : 723-4255, hancik@pspd.org)
제 목 '유전자 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 토론회 보도요청
날 짜 2000년 9월 21일 (목) (총 3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유전자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9월 27일(수)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9월 27일(수) 오후 3시부터 6시 까지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유전자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별첨자료 참조)
2. 유전자 치료는 1990년 미국 보건원(NIH)의 처음 승인으로 시작된 이래 그 차제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많은 윤리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점차 많은 질병 및 특정 형질의 원인유전자들이 밝혀지면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우생학적인 이유에서도 향후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와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몇 년전 중앙대병원에서 前임상실험도 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유전자치료를 한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여러 병원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유전자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침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토론회에서는 유전자치료의 정의, 가능성과 한계, 국내의 유전자치료 기술수준 및 현황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유전자 치료 사망 사건을 살펴봄으로서 안전과 윤리, 환자의 동의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 지침 제정 상황을 외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올바른 접근 방법 및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로는 '국내 유전자 치료의 기술수준과 현황' 부분을 이제호 삼성의료원 유전자치료센터 소장,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문제'는 강미정 박사(생명윤리학회), '제시 쟁쟁어 사건으로 본 안전과 윤리 문제'는 남명진 박사(국립보건원) 그리고 지정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문의는 02-723-4255 (김병수, 한재각) 끝.

- 별첨자료 : 「유전자 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 안내문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차)

'유전자 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 토론회'

유전자 치료는 1989년 미국의 NIH주도로 처음 시작된 이래 그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많은 윤리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점차 많은 질병 및 특정 형질의 원인 유전자들이 밝혀져 변형·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우생학적인 이유에서도 향후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와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 중앙대병원에서 前암상실험도 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유전자치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조차 없는 것이 현재의 국내 현실입니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에도 몇몇 병원에서 유전자 치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의 논의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치료 지침제정은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유전자 치료의 기술수준과 현황, 유전자 치료행위 자체의 윤리적 문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00년 9월 27일(금) 오후 3시 - 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연락처 : 02-723-4255(김병수, 한재각) biocdst@orgio.net

인사말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 김환석 국민대 교수

주제 발표 (각 20분)

1. 국내 유전자 치료의 기술수준과 현황
— 이재호, 삼성의료원 유전자치료센터 소장
2.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문제
— 강미정, 생명윤리학회
3. 제시 겔싱어(Jesse Gelsinger)사건으로본 안전과 윤리문제
— 남명진, 국립보건원
4. 유전자 치료지침과 안전성 확보 방안
— 김주향, 연세대학교 암연구소

지정토론 (각 10분)

- 시민단체: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보건복지부: 김진석, 보건산업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영옥, 의약품안전과

자유토론

- ☐ 참여연대는 종로경찰서 건너편 3층짜리 적벽돌 건물입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출구로 나오세요.
- ☐ 시민과학센터는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공학 각 이슈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월 29일 : 인간배아복제, '14일론' 집중토론회 / 8월 18일 :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9월 27일: '유전자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 토론회